

# ‘약사여래’ 사회통합 정신 최초 조명

### 동화사, 콜롬비아대와 공동 개최...세계 석학 17명 참여

한국 약사신앙의 중심지로 꼽히는 팔공산 동화사에서 전세계 학자들이 약사신앙과 불교의 치유·통합 정신을 고찰한다.

대구 동화사는 5월 29-30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미국 뉴욕 콜롬비아대 불교·동아시아 종교센터와 함께 동아시아 약사신앙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연다. 약사여래신앙은 동아시아불교 전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서구불교학계에서는 라울 번바움(Raoul Birnbaum)의 저서 외에는 연구성과가 전무했다. 팔공산은 신라에서 경주 남산과 함께 중요한 산으로 꼽힌 것으로 당시 민심을 통합하기 위한 약사여래신앙이 발달했다.

세미나는 29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4부에 걸쳐 진행된다. 학술세미나에는 총 17명의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제1부는 ‘민간신앙과 약사불’을 주제로 남부희 국민대 교수가 ‘팔공산 동화사의 약사신앙’과 김중명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현대 한국의 갓바위 약사불 신앙’을 발표한다. 마이클 코모 콜롬비아대 교수와 사뮤엘 모스 엠허스트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부는 ‘치병과 의약’을 주제로 피어스 살구어로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수가

‘약사불, 불교 경전에 보이는 의약’, 마이클 코모 콜롬비아대 교수가 ‘약사불과 용왕’, 맥스 모어만 콜롬비아대 교수가 ‘붓다와 목욕물: 일본의 치병, 온천과 약사신앙’을 발표한다.

토론자로 는 안준영 미시간대 교수, 브라이언 로 밴더빌트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제3부는 ‘약사여래 도상의 변천’을 주제로 입남수 영남대 교수가 ‘고대 한국

### 5월 29~30일 통일대불전에서

### 라울 번바움 외 약사신앙 연구 전무

### 민간신앙·치병·변천 등 종합 고찰

### 약사 사진전·자료집 출간도 진행

약사여래 도상과 전통’, 유이 스텔리 메릴랜드대 교수가 ‘사이조와 헤이안시대의 천태종 약사 신앙’, 사뮤엘 모스 엠허스트대 교수가 ‘카미 신으로서의 약사불’을 발표한다.

△제4부는 ‘역사 속에서의 약사신앙’을 주제로 석스루 포모나대 교수의 ‘약사불 연명 신앙과 5-6세기 중국의 치병 및 연명에 대한 민간 신앙적 관념’, 정병삼 숙명여



세미나와 함께 열리는 동아시아 약사신앙 사진전의 대상 수상작 ‘자비의 눈빛’.

대 교수의 ‘신라 약사신앙의 성격: 교리적 해석과 신앙활동’, 야오 종신 손양선대 교수의 ‘정도왕생인가 혹은 현세구복인가?’, 라울 번바움 UC산타크루즈대 교수의 ‘홍이선사를 통해 본 중국의 약사신앙’이 발표된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팔공산에는 삼국통일전쟁 당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통합을 상징하는 많은 약사여래불이 모서린 곳이다”며 “동화사가 범상종 계열로 시류불을 모셔야 함에도 약사여래불을 주불로 모시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성문 스님은 “이번 학술대회는 불교가 당시 사회에 어떻게 참여하고 소통했는지를 밝히는데 의미가 깊다”며 “이를 계기로 세계 불교학계에서도 약사신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화사는 학술대회와 함께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화사 불교문화관에서 ‘동아시아 약사신앙 사진전’도 개최하며 미국 하와이대 출판사와 함께 이날 발표된 발제 논문을 영예본을 펴낸다. 여기에는 학술대회에는 일정상 참여하지 못했던 로버트 서먼 콜롬비아대 교수 등의 논문도 실릴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 학술 · 문화재소식

### 불교학연구회, ‘불교학 첨단 연구’ 학술대회

#### 5월 25일 서울대에서...신진학자 대거 발표

불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는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소장 박찬국)와 함께 5월 25일 오후 1시 서울대 인문대학 8동 101호(연강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불교학의 첨단 연구’란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소장학자들의 새로운 논문이 대거 선보인다.

△김현희 경상대 박사과정의 ‘원효의 판비랑론에서 오시삼상(五識三相)의 개념’ △정유식 도쿄대 박사수료의 ‘여래장

과 아뢰야식에 관한 능가경의 이해’ △동국대 강사 정운 스님의 ‘당대(唐代) 선사들의 교육 방편’ △이태승 위덕대 교수의 ‘일본 근대불교계의 전쟁에 대한 인식 연구’ △박재현 동명대 교수의 ‘국내 불교학계의 구성적 특징과 연구 현황’ 등이 발표된다. 한편 불교학연구회는 이날 학술대회에 앞서 박경준 前불교학연구회장에 공로패를 증정한다.

노덕현 기자

### 원각사상상, ‘원각사상 종합연구’ 세미나

#### 5월 31일 관음사에서 상월 원각조사 사상 다각도로 조명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중)은 5월 31일 오후 1시 관문사 2층 대강당에서 ‘원각사상의 종합적 연구’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김용표 동국대 교수의 ‘상월대조사의 불교혁신관’ △정성준 동국대 티벳장정연구소 연구원의 ‘십일면관세음보살의 신행관(信行觀) 고찰’ △안환기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연구원의 ‘진(眞)의 세계를 향한 디딤돌 의언(意言)’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 제7회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수상자 발표

#### 천마상에 임학중 학에서 고려불교향로 고찰 논문 등 눈길

국립중앙박물관회(회장 김정태)는 5월 14일 제7회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상인 천마상 수상자에는 ‘홍도(紅陶)의 성형(成形)과 소성 실험(燒成 實驗)’ 논문을 쓴 임학중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원이 선정됐다.

금관상은 ‘무령왕릉 출토 탄목제품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명칭제고 및 한반도 내 출토 현황 검토’의 유해선 국립공주박물관 학예연구관, ‘육에 김진여

(1675-1760)와 18세기 전반 초상화의 일변’의 문동수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에게 돌아갔다.

또 이정근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삼국시대 토기 제임 방법에 대한 검토-고식도질토기 제임 방법과 변화를 중심으로’, 이웅진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가 ‘고려시대 불교향로의 전통성과 독창성’으로 은관상을 차지했다. 상급은 천마상 1000만원, 금관상 500만원, 은관상 200만원이다.

노덕현 기자

### <한국불교학 제66집> 원고 모집

#### 7월 5일까지 불교교학 · 불교사학 · 응용불교 3개분야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국불교학 제66집>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불교교학, 불교사학, 응용불교 3개 분야로 원고 마감은 7월 5일까지다. 한국불교학회는 투고 논문에 대해 원고매수는 200자 원고지 기준 총 150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한글요약본은

600자 이내, 영문요약은 200단어 이내 분량의 제한선을 뒀다. 특히 논문의 한글 및 영문 주제는 각 5개 내외이고 참고문헌 목록은 본문에 인용·참조된 문헌만을 수록하는 논문체제 원칙 준수를 당부했다.

응모원고는 논문심사 및 연회비 납부 회원에 한해 투고 자격이 주어진다. (02)2260-3835

노덕현 기자

## 선본사 · 갓바위 관계 규명 자료 발견

### 불교문화재연구소, 성보문화재 정밀조사 결과 1800년대 문헌 2건

그동안 구전으로만 전해져 오던 선본사와 갓바위 관계를 규명하는 최초의 자료가 발견됐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각립)는 5월 15일 ‘경산 선본사 성보문화재 정밀조사’ 결과 선본사 갓바위 불상에 관한 새로운

위 불상이 한 도량으로 포함됐음을 시사한다.

<선본사사적기(禪本寺事蹟記)>는 1821년 선본사 스님인 범해(梵海) 스님이 작성한 글로 갓바위 불상에 관한 것들이 주된 내용이다. 선본사에서 갓바위 불상을 귀중히 여겼음을 알려준다.

사적기에서는 ‘천여 년이 지났는데 석상은 의연하게 단아한 자비로운 용모를 띠고 있다(凡經千有餘載...而石像依然端雅慈容)’, ‘불상을 보고 감응이 일어나 기도와 축원을 올리면서 감응을 얻은 사람이 많다(觀感興起祈祝獲應者多矣)’, ‘이것(불상의 조성)은 의연희상의 공(此即義玄和尚之功)이다’ 등의 내용이 나온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각립 스님은 “지도에서는 불상의 관(冠) 부분을 삿갓으로 묘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조선 후기에 이미 ‘갓바위 부처님’으로 불렸음을 짐작케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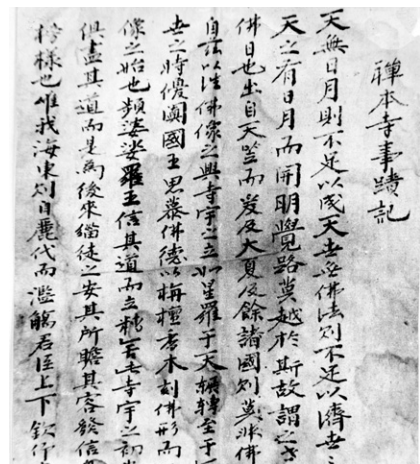
스님은 이어 “사적기를 통해 갓바위 불상이 통일신라시대 의연 스님이 조성했으며 19세기에도 갓바위 불상이 많은 이의 기도와 축원에 감응해 기도하는 이들의 행렬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견된 자료들은 향후 발간 예정인 선본사 정밀학술조사보고서 <팔공산 선본사>에 수록될 예정이다.

선본사 주지 덕문 스님은 “이번 자료는 선본사가 오랜 세월 동안 관봉석조여래좌상의 외호 사찰이었다는 내용”이라며 “그 동안 갓바위와 선본사의 관계가 학문적으로 조명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여래좌상을 국보 추진을 보다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문화재연구소와 선본사는 보고서 발간과 동시에 5월 29일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사, 미술사, 건축사, 보존학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팔공산 선본사 갓바위부처님’ 불교유산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범해 스님이 작성한 <선본사사적기>



<하양현지도>에서 선본사 고지도 부분. 갓바위 부처님이 삿갓을 쓴것으로 표현돼 있다.

### 지도 갓모양, 당시 갓바위 명칭 의미

### 5월 29일 세미나 통해 학술 고증

자료인 <하양현지도(河陽縣地圖)>와 <선본사사적기(禪本寺事蹟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양현지도(河陽縣地圖)>는 1872년에 제작된 고지도다. 지도에 나오는 ‘선본암 자관삼십리(禪本菴自官門三十里)’ 명칭은 선본사의 지리적 정보 뿐만 아니라 선본사와 삼층석탑, 산 정상인 관암의 갓바

**화제의 신간 한글 법화경**

한글 법화경

**一大事 因緣**

이 세상(三界)이 편한함이 없는 것은 마치 불난집과 같으며, 많은 괴로움이 가득차서 가히 힘이 겹나고 두려우니라..... 그 가운데 증생은 모두 바로 나의 아들이거늘 ..... 오직 나 한 사람만이 능히 구원하고 보호 하느니라!

한글 법화경은 구마라집 한역 모범번화경을 한글로 풀이한 경전이다.

법화경은 불성(佛性)인 참 생명의 영원실상을 명쾌하게 드러내어 인간의 상상을 뛰어 넘는 경전으로 대우주를 지배하는 최고의 힘 그 자체라 하겠다. 능히 일체 증생으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과 번뇌를 여의케한다. 우주와 같은 마음을 직시하고 법화경을 되풀이하여 읽고 쓰면 더욱 참 맛이 우러나오는데 영원한 생명의 노래가 된다. 매일 읽고 쓰게된 공덕은 불가사한 현상의 기적으로 실제 일어나 신비의 체험은 다반사(茶飯事)며 삼세계를 부처님의 축복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은 실천적인 생활불교의 이정표이며 신앙적이라 영험실화가 가장 많음을 알게 될것이다.

증생이 본래 부처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라. 큰 법을 온세상에 널리 펴라. 법화 행자여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 법보시 주문은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송월스님 옮김 / 신국번역판 / 584쪽 / 정가 20,000원

**불교성서**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

THE LIFE AND HIS TEACHING OF BUDDHA GOTAMA SAKYA

제 1편 : 부처의 생애  
제 2편 : 부처의 가르침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부처(sakyamuni Buddha)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이며, 불교교단이 어떻게 형성되어 발전되었는가를 그의 생애의 기록을 통하여 생생히 이해할 수 있다.

정가 30,000원

•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은 곧 진리의 말씀.  
• 불교란 ‘삶의 바른길,의 실천을 통해 불교의 이상인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

건강하게 사는 법 — 신비의 호흡요법

건강하고 행복한 삶 그 어느때 보다 건강을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

히말라야의 영원한 스승 바바지를 통하여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올바른 호흡을 제시하고 인간의 우주적 역할과 영원한 존재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명상과 요가의 수행법 그리고 호흡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

정가 12,000원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4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상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대장,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 (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6월 26일까지

◆ 개강일시 : 2013년 6월 27일 목요일 개강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